

# 국어

문 1. 표준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 ① 시험을 치르고 나니 허탈감이 엄습했다.
- ② 이 딸기 통털어서 얼마니까?
- ③ 사소한 일로 티각태각하다가 결국 헤어졌다.
- ④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문 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법을 어긴 자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나를 처벌하려면 ㉠법 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도리어 큰소리치기도 한다.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삼춘뻘 되는 상대방에게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라며 삿대질을 하기도 한다. 무릇 사람이란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자기 존엄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문 3.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요즘 머리가 벗겨져서 고민이야.
- ② 신발이 꼭 끼어서 잘 벗어지지 않는다.
- ③ 인형의 머리를 벗어 주었다.
- ④ 이제 그만 분을 삭이고 내 말을 들어라.

문 4. 우리말의 높임법(혹은 존대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은?

- ① 할아버지께서는 이빨이 참 좋습니다.
- ② 교수님은 두 살 된 따님이 계신다.
- ③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 ④ 이 책은 우리 선생님이 준 책이야.

문 5.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은 안경을 쓴 형사의 본때는 든든히 믿고 있는 어떤 힘을 가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 ② 알뜰한 양철 난로가 금세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방 안이 훈훈해졌다.
- ③ 나는 이 집에 눈곱만큼의 미련도 없다.
- ④ 요즘 청소년들도 떡볶이를 즐겨 먹는 것은 마찬가지다.

문 6. 밑줄 친 표현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늘이 맑게[말게] 개었다.
- ② 끝을[끄칠] 맞추어서 접어야 종이가 반듯하지.
- ③ 주의[주이] 사항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④ 아이가 내 발을 꼭 밟고[밟:꼬] 있다.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銀은 𠂔툼 두지개, 玉옥 𠂔툼 龍룡의 초리, 셋들며 쏘는 소리 十십리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논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 정철, ‘관동별곡’ 중에서 —

- ① 시각 인상과 청각 인상을 함께 사용한 복합 감각적 표현이다.
- ② 자연물에 의탁하여 애끓는 연군지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 ③ 비유법과 대구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연의 위용을 화려하게 표현했다.
- ④ 기발한 조어(造語)와 형상적 문체로 금강산 폭포수를 묘사했다.

문 8.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말소리와 그것이 싣고 있는 뜻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혹은 임의적)이다. 밤하늘에 떠서 세상을 비춰 주는 물체를 반드시 [달]이라고 불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언어에서나 [달]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문]이라 하고 스페인어에서는 [루나], 헝가리어에서는 [홀드], 일본어에서는 [쓰키]라고 한다. 그것은 마치 붉은 교통 신호등이 정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다. 붉은색이 정지를 뜻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푸른색을 정지, 붉은색을 진행 표시로 정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약속으로 통용되기만 하면 된다. 교통신호는 색깔로 진행이나 정지를 표시하지만, 언어는 말소리로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말소리는 그릇과 같은 것이요, 뜻은 거기에 담긴 내용이다.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인 음성기호의 체계라고 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수화(手話)는 손짓으로 뜻을 전하며 밤중에 항해하는 배들은 불빛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언어는 말소리로 뜻을 전달하며, 말소리와 뜻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다.

- ① ‘호랑이’와 ‘뱀’이라는 동의어가 존재한다.
- ② ‘까닭’을 뜻하는 중세어 ‘전츠’가 후대에 와서 사라졌다.
- ③ 한국 사람들은 수탉의 울음소리를 ‘꼬끼오’라고 한다.
- ④ ‘부추’를 어떤 방언에서는 ‘솔’이라고 한다.

문 9. 다음 글이 제시한 유형에 해당하는 오류가 아닌 것은?

“바람을 피다.”는 잘못된 말이다. 왜냐하면 ‘피다’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와 함께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동사 ‘피우다’를 사용하여 “바람을 피우다.”와 같이 써야 한다. 이처럼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을 하지 못해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니 글을 쓸 때는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 ① 밤을 새지 말고 일찍 자라.
- ② 담배를 필 사람은 밖으로 나가세요.
- ③ 아침에 서두르다가 먼도날에 턱이 뻐다.
- ④ 소풍 전날이 되면 항상 마음이 설레었다.

문 10. 다음 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박제(剝製)가 되어 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銀貨)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횃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으레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도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공할 상식의 병이오.

나는 또 여인과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 기법에마저 서먹 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깃 좀 들여다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 분일자(精神奔逸者) 말이오. 이런 여인의 반(半)—그것은 온갖 것의 반이오—만을 영수(領受)하는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 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꺾꺾 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의 제행(諸行)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고 그만둔 모양이오. 굿바이.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貪食)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패러독스와…….

그대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오. 그대의 작품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기성품에 의하여 차라리 경편(輕便)하고 고매(高邁)하리라.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하여 버리오. 도스토예프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소. 위고를 불란서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지언(至言)인 듯싶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 모형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 다거나 해셔야 되겠소? 화(禍)를 보지 마오. 부디 그대께 고하는 것이니…….

(테이프가 끊어지면 피가 나오. 생채기도 머지않아 완치 될 줄 믿소. 굿바이.)

감정은 어떤 포즈. [그 포즈의 소(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지 나도 모르겠소.] 그 포즈가 부동 자세에까지 고도화 할 때 감정은 딱 공급을 정지함네다.

나는 내 비범한 발육을 회고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규정하였소.

여왕봉(女王蜂)과 미망인—세상의 하고많은 여인이 본질적으로 이미 미망인 아닌 이가 있으리까? 아니! 여인의 전부가 그 일상에 있어서 개개 ‘미망인’이라는 내 논리가 뜻밖에도 여성에 대한 모독이 되오? 굿바이.

— 이상, ‘날개’ 프롤로그 중에서 —

- ① 화자는 자신을 ‘정신 분일자’라고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일상어의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비논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③ 자신을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라고 하면서 이야기 속 ‘나’의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 ④ 독자를 상징하는 등 엄격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롤로그를 서술하고 있다.

문 11. 다음 글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에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네 학교 교육은, 그러니까 시작하던 그 때부터 우리 말과 우리 삶을 떠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말과 우리 삶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으므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말과 우리 얼로부터 멀어지고 육신마저 집과 고향을 멀리 떠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제 것을 버리고 무시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오래도록 걸어온 길이었기에, 학교 교육을 받은 시간의 길이와 내 것을 버리고 떠나간 마음과 공간의 거리가 늘 비례했습니다. 높은 학교까지 가서 많이 배운 사람은 반드시 고향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 살아야 마땅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 어찌다가 그런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 살고자 하면 모두들 업신여겼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사람으로 보고 그의 공부가 헛되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교육의 역사입니다.

- ① 올바른 교육은 언제나 우리 삶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올바른 교육은 제 것보다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고향에 돌아와 봉사해야 한다.
- ④ 올바른 교육은 모름지기 자기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문 12.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중국에서 역사가 독창적인 학문으로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사마천(司馬遷)에서 부터였다. 사마천은 『사기(史記)』를 써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史)’라는 말의 근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사(史)’는 후한(後漢)의 『사언(辭淵)』에 따르면 기사적서(記事의書), 즉 사건을 기록한 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의 역사 문헌인 『상서(尚書)』와 『춘추(春秋)』는 한(漢)나라 때 유교 경전으로 중시되었으나, 이런 경전으로부터 독립시켜 역사를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정립한 이는 사마천이었다. 『사기』는 중국 고대로부터 사마천 당시의 한무제에 이르는 약 3,000년의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기록한 통사(通史)이다.

‘역사’란 말은 ‘역(歷)’과 ‘사(史)’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史)’자는 입 구(口)와 사람 인(人)을 합친 글자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한 말’ 또는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사(史)’가 사람이 책을 받쳐 들고 있는 형상을 나타내므로 ‘사물이나 사건을 글로 써서 남기는 인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에서의 ‘사(史)’의 개념은 서양에서와 같이 역사적 사실 그 자체와 역사 서술이라는 이중의 뜻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즉 사관(史官)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동양의 역사 개념은 서양의 역사 개념보다 다층적이다.
- ② 역사는 결국 사관의 기록일 뿐이다.
- ③ 경전과 사서는 서술 대상 및 서술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 ④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서는 본래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